

조선인민군 포병사령부 병기총국장  
천이완 소장.

양력:

본명: 천이완 알렉산드로비치, 1919년 10월 1일,  
원동변강 연해주 보보시예는 구역 블라바눔카촌 빈농민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1928년에 블라바눔카촌 인민학교에 입학하여 1932년  
에 졸업하였다. 다음 계속 블라바눔카 농민청년 중학교에 입  
학하여 1935년에 그 학교를 졸업하였다.

1935년에 원동에 유일할 한인 사범전문학교에 입학한후  
1937년에 전문학교 2학년으로 졸업하고, 다음 원동으로 옮겨  
전체 한인들이 강레이주로 알리야나 사범전문학교로  
원동에서 떠나 중앙아시아 가자르공화국 가자르스크에  
모여있던바 천이완도 그 학교를 따라 가자르스크  
에 도착하여, 1938년에 그 학교를 졸업하였다. 전문학교  
를 졸업하면 법적으로 파견받은 곳까지 2년간 교원직무에서  
꼭 일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천이완에게는 한가지 우월권이  
있었던바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체육을 잘하여서 소문을  
놓았다. 사전에서 공부할 때에도 우수한 체육 선수로서 각 체육  
경기에는 빠짐없이 참가하는 동시에 사관체육단 지도자로서  
배구선수로써 있었다.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범대학  
에서도 어린 체육선수는 꼭 영수려고 하였다. 천이완의 이러한  
천재를 타산하여 사대지도부는 천이완을 사전 졸업후 직접  
전문학교에서 공부하여 사대에 무조건 입학시켰다. 또 다른  
한가지 유리한 조건은 천형 천돌이 일년전에 사전을 필  
하곤 우즈베크스탄에서 일하고 있기때문에 부모들에 대한



사진은 1947년에 천이완씨가 조선인민군 체육부장으로 있을 때였다. 오른쪽에 서고 있는분은 친형 천을씨다

직정 근심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천이완씨는 사관 졸업후 그해에 직접 사대 자연지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사대에서 4년동안 공부하고 1942년에 사대 졸업국정 시험을 치리고 고종, 전봉 학교 자연지리 교원 칭호를 받는다. 이 때 학 지도부의 파견을 받아 우즈베크 공화국에 가서 공화국 교양성의 파견에 따라 타슈켄트주 중 실치구역 가라쉬 교중에서 자기 친분 과목들의 담당교수로 일 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벌써 1938년부터 천이완의 친형이 문학교 원을 하고 있었다. 두형제는 한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신뢰를 받으

면서 '쏘련군에 소병될때까지 모범적으로 일하였다.  
 1942년에 천이완은 23세의 이남자, 그와 더불어 대학을 나왔으  
 며 체육가-배구선수로서의 성장한 딸들은 두집에서는 욕심을 낼  
 만한 대상이었다. 바로 이때에 한 해전에 동공함을 졸업한  
 강이나 양을 만나게 되었었다. 그녀자는 1923년에 원동변  
 강 보시예는 구역 바라바스 숲에서 탄생하였다. 강이나 양은 사  
 부원의 (교원의 가정에서) 가정에서 출생하였으리 공부로 잘하고  
 용모도 잘생겨서 변명을 리얼이라고 불렀다. 참 이 둘 둘이 만  
 남은 항구영생 배필이었다. 그들은 1942년 11월 22일에 결  
 혼 장치를 양측 부모들이 제신 화영숙에서 성대히 하였다.

천이완은 1945년 10월 하뉴켄스주 군사동원부의 명령에  
 따라 초보로써 급속히 원동변강 제 1전선, 25군 단 관할하  
 에 배속 되며 북한에 도착하였다.

1945년 11월 1일부터 25군단 민전사령부 코마넨트 소장의  
 지도하에 북한의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등의 민족개혁에 적극 참가  
 하면서 김일성정부를 양심껏 돕어가면서 일하였다.

1946년 5월 3일부터 민전군 조직과 관련하여 포병총공수의  
 변역원으로 포병부대들을 조직함에서 일하였다. 군사 칭호 - 대위.

1947년 3월 7일 - 조선연변군 최군사령부 체육부장 - 군사 칭호 소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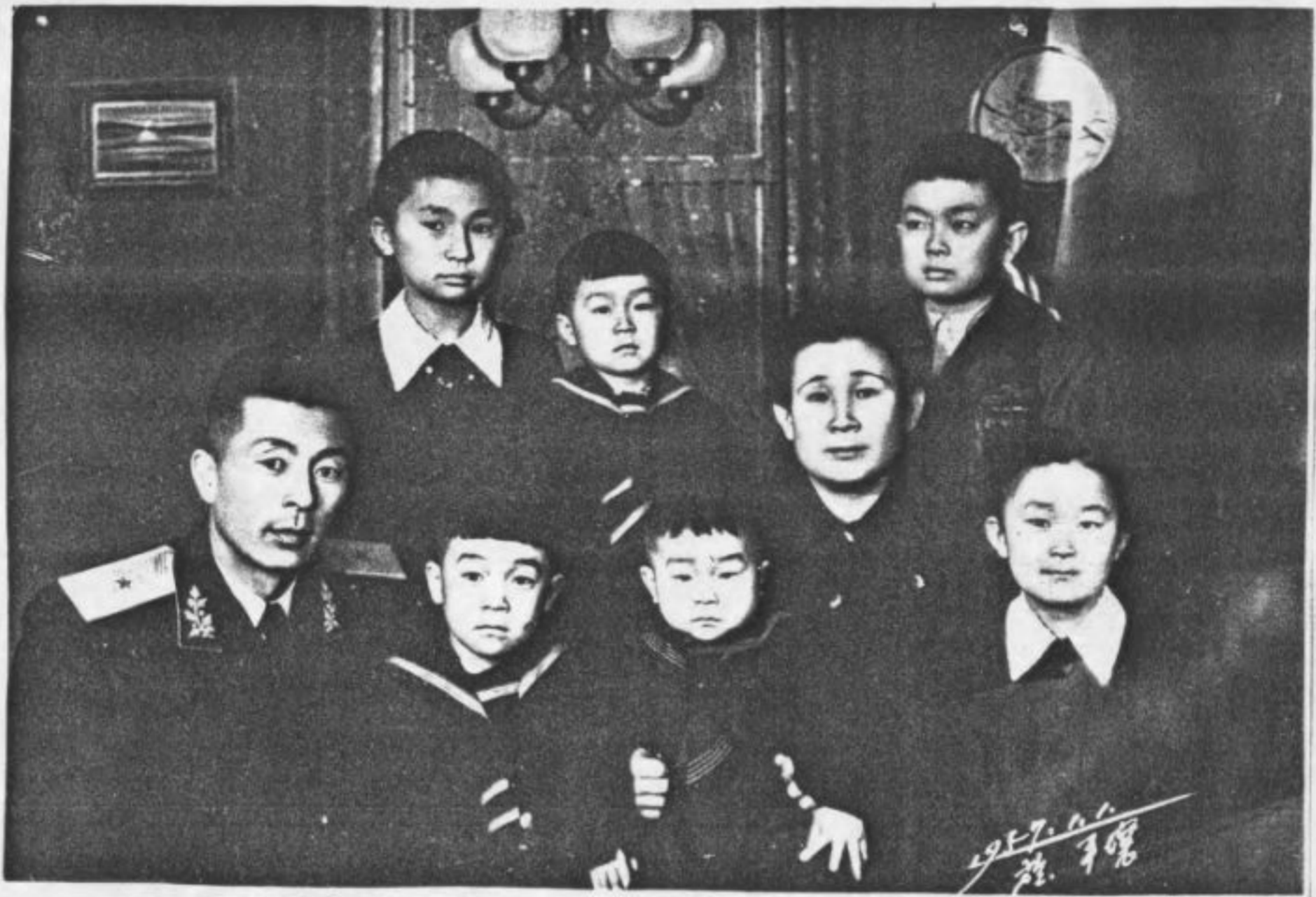
1948년 5월 6일 - 조선연변군 탕크 사령부 변역원 - 군사 칭호 중좌

1949년 - 1952년 4월 22 탕크 사령부 참모장 - 군사 칭호 대좌

1952년 4월 24일 - 포병사령부 병기총국 국장 군사 칭호 소장.

조선으로 불어 쏘련군 계통으로, 쏘련공산당 계통으로 쏘련적십자사  
 계통으로 하여 종합 438명의 쏘련간부들이 북한에 가서 사업하  
 였었다. 조공에서 45명은 완전히 한합당하여 후속 총살되고  
 약 120명 가량 사상검출후 북한으로 부터 추방 되여 쏘련에  
 귀환하였으리 가타 270여명 간부들은 사상검출결과 북한  
 의 방방곡곡 - 농촌, 환관, 광산, 립업소등과 정치범 수용소등에서

과거의 세상을 아감하였다. 물론 이것은 김일성의 영웅심에서  
출발한 개인 숭배주의 결과인 것이다.



사진은 천이완소장이 병기총국장으로 개살시의 가족사진

김일성의 개인 숭배에 대하여:

1992년 2월에 고려인 문화 협회 중앙 협회 명의로 정치 실무적  
리론 논론회를 모스크바에서 조직하게 되었다. 그 실무적 회의에  
각 공화국을 불러 약 200여명 지식층 소련 한인 언하리 들어  
참석하게 되었다. 리론 회의 의정에는 단하까지 주제: "고려인  
들 앞에 제기된 정치적 몇가지 문제와 그의 해결책에 대하여"가  
였으며 리론 회의 보고자는 - 기본보교에 유부위원장, 보충보교들은  
각 공화국 대표들이 하게 되었다. 기본보교에서 유부위원장은 언중  
타기를 소련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쓰팔린에 의한 한압, 강제이주  
에 대하여 이것이 쓰팔린의 개인 숭배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언  
중재 북한 지도자 김일성에게 개인 숭배가 심하여 무다한 언변  
들의 한압 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실례로 박헌영, 박철우, 허파  
박이완 등이 한압 처단 되었으며 현재 중국과 소련 간부들은  
전북과 청산리고 어느 형편에 라고 결론하였다. 이 때에 본 리론

회의에 참가하고 있던 북한 대사관 참사가 평단에 올라가  
 발언하기를 - 우리 북한 노동당 총비서 김일성 원수께서는 개인충성  
 가 없다고, 하고, 우리당은 소련에서 철하고 있던 충실한 간부  
 들은 현재에로 철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그당시에 누가 철하  
 고 있었는가? 438명에서 남아 있는것이 민족보위성 김봉을  
 부삼, 내무성 사회안전국장 방학세, 정치안전국 처장 김학인  
 등 3명 뿐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사상검토란  
 무엇인가 대략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현이완 노장은, 120이명가량  
 소련에 귀환한 소련 출신 간부들중 사상검토 결과에 최별을 받지  
 않고 돌아온 간부들은 불과 10여명에 달하며, 그 외에 간부들은  
 다 출직, 강직 최별을 당하였으며, 그중 2명은 출당을 당하였  
 으나, 소련에 귀환후 복당하였던바, 그 10명중에 복당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현한 일은 아니었다. 노동당 출신자들은 아무리  
 공훈 있고 존경받던 사람이라도 그를 반당분자로 만들자면  
 재료를 조작하여 만들어 준하였다. 때때로 사상검토 지도자  
 들은 현이완도 현물과 같이 간단한 최별을 구하려고 애를  
 썼으나 재료를 얻을수 없어서 하북 당원들의 지지를 받  
 을수 없었다.

사상검토:

1958년 이월이 금방 지나자 현이완의 현형 현물의 사상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 소식을 받자 현이완 형이 있는곳  
 강원도 이포에 내려 갔다 왔다. 그것은 형이 무용죄를 짓거나  
 그렇게 존경받던 어른이 관세를 당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알아 보려는 목적이였다. 이렇게 형을 몰안하러고 이포에  
 다녀온후 이어 병기총국 사상검토가 시작되었다. 사상검  
 토 당회의에서는 병기총국장의 지료분어 검토하기 시작하였  
 던바 그것은 일반 소련 간부들에게 죄명을 시우는 사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에나 증거로 띄워진것은 현이완의 사

북실에 노련 "백라유다" 신문철이 고령적으로 있다고, 하고  
 극장을 그것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다는 것과 아주 형편이  
 나쁜 것은 전쟁시기에 천이환은 간리병기항에서 방수천 1세  
 타를 갖다가 산양용 장화를 짚어 신은 물이 났었다. 이것  
 이 세밀한 물레로 되었으며, 또 한가지 물레는 1945-46년으로 일  
 이었다. 그 당시에 천이환은 노련 기관대우는 받았으나 함상사복  
 을 하고 노련군 인력사령부에서 일하는 시기였으며, 다 직 노  
 련에서 가족이 오지 않거나 독신생활을 하는 시기였다. 또 그  
 렁게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천이환은  
 노련에서 불어 잘 알고있던 자기 친구들인 현희만, 박태준,  
 박태섭, 박훈 등 5명이 평양중앙부 황금정 양주공장근로  
 에서 개인집으로 세를 빌려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근로  
 에 여러가지 개인 장난감 상점들도 많았으며, 각종 가정도  
 구, 기계, 자전거를 무리수도 있었으며 그중에서 경제화 노인의  
 무리수가 비합적 것도 빈방로 있어 최근 어둑면 종종 불며 불후  
 량도하고 어떤 때에는 밤늦게 일어나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런데 어리박스라는 사냥감을 지도원은 당위원장과 함께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셋방집, 종종 불며 불던 경제화 노인  
 집에까지 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놓고, 무슨말들로 주를  
 하였는가 하는것을 조사하였으며, 또 남침으로 12월 11일 군관들로  
 특별 검열보리가다를 조직하여 간리, 회천, 강계, 만포등  
 병기항들을 동당 검열하였다. 그 다음 그 결과들을 가지고 천이  
 환에게 질문을 하여서 부정행위에 대하여 설문하라고 풀라  
 대준하였다. 그 당시나, 짐주받고 있는 노련이나 부정행위란 천이  
 환이나 천희에게 있어서는 해본일이 없었다. 간혹 동무들과 같이  
 술먹으러 술집이나 정제리 기생집에는 가본일이 있었지만 반당  
 종파란 개념도 모르고 지내다보니 그런말을 할수로 없다고 천이환 때  
 답하였다.

화  
 심  
 큰  
 될  
 수

병기 총국 사상검토 회의는 매일 오륙 나시 붙어 7시 까지 하기로  
 결정한다음, 어떠한 새 문제가 없어도 매일 어찌지 한말을 모른다  
 반복하면서 당원들의 이름은 부르면서 어느말도 자꾸만 하라고 호들  
 하였다. 당원들은 할수없이 지난 시기의 죽은말, 아무런 문제개티  
 되지 않는 말이지만 사상검토 지도원의 독촉에 의하여 자기 차  
 례를 담당하기 위하여 생각없는 말도 하곤 하였다. 당 회의에  
 서는 어떤 새사건이나 나물가 하여 당회의를 제때에 끝내지  
 못하고, 즉 저녁 7시에 끝내지 않고 때로는 8시, 9시까지  
 끝내곤 하였다. 어떤 때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정부인들을  
 아이들은 저녁을 먹여 잠자리에 들여 놓고 사상검토 회의에서  
 돌아올 자기 남편을 기다리다가 제때에 집에 돌아오지 마  
 니면 항상 눈물로 마음 조리고 있었다. 그것은 사상검토 회의에  
 서 직접 검거하여 사상검토 유치장이나, 내무서에 보내는일로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민군대 고급간부들은 거이나 전부다 평양  
 중앙부 극립예술극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는 기억  
 자 형 3층 아베바흐에서 살고 있었다. 사상검토 회의는 전반  
 적으로 각국들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었다. 때문에  
 아베바흐에서 기다리던 가정부인들은 전부다 형편이 일정하였  
 으며, 어느 집 형편이 허사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형편이었  
 다. 사상검토 지도부에서, 김창만 부위원장의 당중앙위원회 대  
 로 인민군대 총책임자를 지르라고 하였으나, 그의 지시에 따  
 라 인민군 고급간부 사택은 매일 주야로 2-3명씩 수직을  
 서고 있어서 어느 간부가 몇시에 집에 돌아오며, 점심이나  
 저녁이면 몇시에 어디로 가며, 어느 간부집에 어떤 사택에  
 찾아와서 몇시간 있다가 갔으며 하는 것을 일컬다  
 살피며 기록하였다가 매일 - 매일 사상검토 지도자에게  
 보고하게 되며 그 다음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일이 들어 오게 되었

환  
 금  
 큰  
 될  
 는

그런데 한가지 지적해야 될것은 천이완 소장은 다른 장령  
 들에 비하여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는것이다. 천이완  
 소장은 인민군 조직 창시불어 소련군 총역관으로 인민군 준관등  
 아주 밀접하게 사접하였다. 현재는 보위상이지만 인민군 조직  
 창시에는 그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까지 거의 뛰쳐나서 군사  
 교육 강습을 소련 준관등에게서 받았다. 그는 김일성 빨라지산 기본  
 성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밀반적으로 전후할줄은 알았지만 군사  
 규정들은 몰랐다. 전후장에서는 그들은 중대장, 대대장들이 자기  
 생각나듯 대로 전후를 지휘하였던것이다. 때문에 천이완은 이  
 때에 빨라지산 출신 강북들에게 권역적 방조를 주면서 전후 규정,  
 내부 규정을 몰해설 설명하여 교육하였다. 민족보위상 김항  
 은 이대로 불어 알게되었으니 마음에서 천이완 소장을 아주  
 존경하며 위로하였다. 때문에 보위상 김항은 숙차 모스크바  
 에 출장 가게 되었더니 124번 천이완을 자기의 동행자로  
 선정하여냈다. 한번은 모스크바에 출장왔을시 천이완의 동재  
 형을 다뉴켄에서 초청하여 보내하고, 그와 만나보고 천이완  
 과 천을대만 대산같은 호평을 주면서 좋은 선물을, 티름 새긴  
 시계로 주었다.

병기국 사상점도 지도원은 특심에는 천이완은 천을군사의  
 원취원 까버렸지만 하등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외형적으로는  
 보위상의 관계를 알고 좀 주려하는 형편에서 인공적 부드러  
 운 성격도 보이는처럼하였다. 그러나 병기총국장모르게 하부각  
 병기총등에는 아주 엄청난 지령들을 내리며 병기총국장에 대한  
 사소한 지령을 배배지라고 신독히 병기국 당위원회에 특파하  
 여 보려하라고 지려하였다. 하부복대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소식은  
 병기국장에게 전하고 싶어으나, 사방에서 살되고 있는 형편에서  
 어떻게 본볼수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병기총국장의 자동차

한  
 금  
 큰  
 될  
 수

윤전후에게 이런 말들을 전하여 그가 출판사나 퇴근시에  
과동차 내부에서 국장에게 이런 전언 흥분을 전하곤 하였다.

사상검토 지도원은 세번 점재비를 각 병기창, 후방부, 재정  
부등으로 검열하였으나 아무런 경계 위반도 발견할수 없어  
극심히 분노하게 생각하고 있으려니 벌써 오래전에 사상검토  
를 끝내고 천이환에게 당품을 돌려주어야 할대신에 근 반년  
이란 긴 세월을 끌고 내려왔다. 그러나 천이환은 여기에서 대변  
아무런 말도 누구하고런지 하지 않았다.

사실상 병기총국장 천이환은 장령이라 하여도 다른 강령  
들에 비하여 넉넉한 생활은 못하였다. 전쟁후 복원리 경정  
적은을 긴박 환경에서 아이 6명을 먹이고 업히고 하자면  
(아들 4형제 딸 2형제) 할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다  
또 장난 율라는 계속 미닌히느 병으로 앓고 있어, 적십자  
병원외 파견에 의하여 모스크바에 치료받으려 가게 되었다. 병  
치료비와 병원에 입원중 모든 비용은 소련법에 의하여 무료라 할지  
라도 왕복 차비와 물주일간 화에서먹고살 비용을 합하여 호송자  
까지 2명분을 계산하면 적지 않은 돈이 요구되었다. 천이환은  
하는수 없이 소련대사관에 가서 영사를 만나 사실 이야기를 하고  
얼마안한 방조를 받았다. 가정에서 모든것을 검열하고 무엇이나  
여벌이 있는것은 봉당 장마당에 들고가서 팔게하여 돈을 뽐어  
있는 이따에 보위성 부상으로 계시는 최현 아버이 어리서 이소문  
들 듣고 천이환을 자기사부실에 초청하고 자가가 만주 빌발지산  
시절 불어 가슴 열화개에 꼬이음겨가지고 단니런 금 회중시계  
를까지 함께 계산하면 몇만원 가격이 산 귀중품을 천이환  
에게 주면서 - 자, 이것을 팔아 귀중한 아이를 살려야지,  
내, 이제 다 늙은게 품시지는 하여 말하겠나, 하고 천결하  
정답은 알수를 하시었다. 좋은 사람에게 "귀인은" 항상 있는법이

라 하여, 최현 선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귀인이었다



사진은 김일성 수상이 소련고문들과 민족보위성 및 당 간부  
들과 같이 찍은 것이다. 좌편 첫 번째 현이완, 다음 리권우.

7군단 군사위원 최윤 소장의 사상검토는 당에서 출장  
직무에서 철직, 본인의 요구대로 소련 고문의 귀환할 것을 허락  
하여 줄 것을 상부에 제기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최윤 소장은 동생을 찾아 평양에 올라와 최윤  
소장더러 소련에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물 대어든  
같이 하느니 갈 때에 이르러 꼭 데리고 가겠다고 건 절의 말하  
였다. 그러지 않기로, 현이완 소장이 별처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다. 왜냐 하면, 최현 최윤 소장이 반당 공화분자로

낙인받아 당에서 출당 되었으니 아무리 사상검토 회의가  
 무사히 종결된다 하여도 남보기 부끄러운 일이었다. 천이완  
 소장은 보위상을 찾아가 이 사실을 이야기로 자세히 하였다.  
 보위상은 천이완의 말을 명심하여 들은 다음 사실 그렇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직접 이분례에 대하여 최고사령관 김  
 일성에게 제기하겠다고 하였다.  
 천을 선생은 자기가 일하던 7군단에서 모든 일들을 종말집고  
 평양에 올라와 동생집에 함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천을  
 선생의 귀국 투옥은 미리 시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  
 이완의 투옥은 따져 시작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사상검토  
 지도자가 천이완의 당증을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지도  
 자는 삼기도 천이완의 뒷조사를 계속 하므로 사상검토 회의  
 첫날에 회부한 당증을 차일피일 하므로 도록 내주지 않는  
 것이었다. 벌써 사상 검토 회의가 끝난지 2 개월이 넘었다.  
 하루는 천이완의 부인 강나나 양이 남편이 너무나 오래  
 뒤에서 말을 돌려야 하지 않겠냐고 대하여 인정스럽게  
 물었다 -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는가 하고  
 물었다 - 그래야 천이완 소장은 대답하기를 언제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사상검토 지도자가 허락이 없다  
 하므로 형기흥국 당위원장의 나의 당증을 도록 주지 않냐  
 고 하오. 그때에 - 강나나 양은 - 그까지 당증은 해  
 물하겠소, 소련에 가기만 하면 살 터인데 - 하였다.  
 그 당증이 있어야, 그것을 중앙당에 갖다기 하되 전  
 당 투옥을 하여 죽는 법이 아니오, 당증이 없으면 출당  
 맞은 사람이 되는데, 소련 공산당에서 물으면 물었어라고  
 대답하겠소? 시간이 걸리므로 전당은 해가지고 가야  
 하지요 - 하였다.

그때에 강남나 양은 천이완 하고 활하기를, 당신은  
모르느라 하고 가만히 계시도. 내가 총정칙극장 허봉학



사진은 조선에 귀환후 1961년에 천이완  
부부와 장모님.

의 처하고 잘 알고 있는 사정이나 그 분하고 복학하면 될수있도  
하였다. 그 어느날 낮에 주인들이 다 일하러 나간 틈을 타서  
천이나 양은 총정칙극장의 집에 먼지 전화를 걸고 놀러  
간다고 한다요, 아이들에게 풀과자 한봉지 싸가지고 갔다  
나나 양이 정물 근처에 접근하자 허봉학의 부인은 벌써  
밖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안마가지고 들어 가게 되  
었다. 강남나 양은 보의상 사행과, 총정칙극장 사행은  
종종 단내에서 전가족들과 배서, 간호장 소지관까지  
잘 알고 접대하는 놀려드려였다. 나나 아르러나는 시형이  
사상권을 걸라를 말하고 그이가 조선으로 귀국하면서 우리  
도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하도부없이 조선으로 귀국하게 되  
어서 인사하러 왔다고 하고, 그런데 병기 총국 당위원장이  
당증을 주지않아 전당수속을 하지못하여 떠 못난다고 하였다

이것을 부탁하니, 중점치국강이 지역에 일에서 돌아오시면  
 병기총국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고 두분은 잠깐씩 인사  
 난다고 헤어졌다. 세상에 자기 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남편은 약에 쓰라고 하여도 없다고, 하도 조선속답어 있어  
 니 그것이 사실이다. 천이완 소장으로 맨 처음에는 부인의  
 제어를 그만두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이야. 본전인 데  
 그러면 가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물리는 형편이 되  
 되었다. 불과 공일이 안지나서 병기총국 당위원장은 사상  
 호 지르원의 명의로 천이완 소장에게 당증을 도록 내주었다.  
 천이완은 그 이튿날 아침에 당중앙 조직부에 전화를 걸고  
 당증 받아오려간다는 보고를 하고 평징을 가지고 가니까  
 당증을 접수하고 말하기를 천이완 행정적 문제가 다 해결  
 되었으니 소련에 가도 좋다고 한다. 동지의 당물건은  
 차후 선생의 뒤를 따라 당지총으로 소련공산당에 전달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4개월 이상 걸린 소련 귀국  
 유혹은 완료되며 1959년 12월 17일에 평양을 출발  
 하여 소련으로 떠나게 되었다.

천이완, 천이완 두 형제는 15년이란 긴 세월을 북한  
 의 인공건설, 특히 연변군대 건설에 힘쓰고, 천이완의 지혜를  
 빌어 일하였지만 소련으로 귀환할 때에 자기 여비로  
 가라고 하였다. 여비문제를 해결하러도 소련 대사관  
 소련 무력성을 걸어서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또 열 개월  
 이상 시일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두 형제는 차후 군코바에  
 도착한 다음에 해결할 것을 짐작하고 업국비사가 나왔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모스크바까  
 지 차비, 짐승밥 등에 필요한 돈 문제였다. 두 가정은 꾸렸  
 던 집을 용당 해치고 무엇이냐 쓸만한것을 전부다 장마당

에 들고 나가 팔아 돈을 만들게 하였다. 이렇게 두 가족은 장마  
당에서 풍돈을 물려가지고 자기 여비로 기차를 타고 소련에 귀



소련에 귀환후 하뉴권을 내무성 전문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내무성 검찰국 각은행 검찰부장, 차남 천 알렉세이.

환하게 되었다. 두 장령 가족은 자기들이 살던 사택에서 평  
양 역전까지 약 2000 미터 (5 리 정도) 거리를 넘어가 군  
들로 싸움을 내며 짐을 싣고 머문들은 보헤스를 하고 나갔다. 여  
사기런 전날에 천이완이 포병사령부 후방부에 화물차 한대  
만 허락하여 지이나 역전까지 싣고가기 해달라고 요청하였으  
나 후방부는 대답하기를 빈차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천이완은  
응급원인 사상자를 회의에서 애를 해주고, 또 여러날 때에로  
이런저런 애로들을 겪으며 병대를 받고 한평생 잊을수없는  
평양을 달리는 철수하여 등지고 소련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게 되었다. 두 장령은 하연없이 차칸에 들어앉아 칙창으로  
 밖을 내다보니, 조경양역을 떠나 처음부터는 곧이 간리병기침, 침이  
 는 여기에 8년 동안 병기 관리국장으로 있으면서 몇번이나 단역  
 갔던지, 그 만에 어떤 병기들이, 한약들이 어떻게 전멸되어  
 왔다는 것이 눈앞에 환하게 환상되었다. 다음으로 그 창터 옆에  
 무성하게 들어서고 있는 무림들은 똑같이 천이완 소장이 자기들을  
 떨구려고 간다고 잘가시라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불러버린  
 물을 흘려놓듯 보였다. 아나, 그것은 그 무림들이 머리를 숙여 눈  
 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물을 흘린 것이었다. 천이완은  
 차칸 내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자기 얼굴을 돌려 형님을  
 쳐다 보니, 그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여 보기도 하니까, 별 말 없이 선의주까지 도착하여 세관소  
 에서 검문을 받은 다음 압록강 철교를 얼른 지나 안동에  
 도착하게 되었다. 안동에 도착한 두 형제는 협산, 식선이나  
 딱히 나온 것처럼, 음도 자유롭게 쉬고 음성도 좀 놀며 말도 좀  
 크게 하게 되었다. 천이완은 어디서인지 불한병을 들쳐가지고  
 천을 천생을 부르며 우리가 자유로운 중국에 도착한 영예로 한  
 씩 들자고 권고하였다. 사실이 대부분 자기들이 안동땅에 도착  
 한 것을 의심스럽게 여기며,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로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없는 정으로 의문로 가지는 정이었다. 이것은 아나  
 마음상, 정신상 한압을 계속 당하고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  
 러 나가는 한압이지만, 그 딸에게 버림을 종전의 이 딸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렇게 상상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두가쪽  
 은 여기서 불어 자유세계의 자유를 맛보며, 경제제적으로 좀  
 바쁘게 지내었지만 모스크바가 무사하게 도착하였다 모스크  
 바에 도착한 두가쪽은 소련 국방성 간부국의 대표 소좌의 접대  
 를 받아 배차로 소련 중앙 기관 "로시아" 에 들게 되었다

두 장정을 영접한 바에 대한 소리는 소련 무력성 간부들의 의의에 따라 말하기를, 급히 배쳐 12월 21일이자, 설전에는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 마음 놓고 죽기면서 살아나 잘 되고 정월 5일 불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다. 두 장정은 15년 동안이나 그리던 동지들을 모스크바에서 만나 보니, 동지들과 같이 서로 벗어놓고, 자유롭게 되고 정월 3일 불어 2일 동안에 천이완은 모든 문제 - 녀류 문제, 하유겐트에게 가서 사혁 문제, 북인 취직 문제 바어들이 할 일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받아 가지고 하유겐트를 출발하게 되었다. 하유겐트에 도착한 천이완은 자기형 천영과 똑같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받는다음 사혁은 바로 한집에 해결받고 행복한 전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제는 조국을 떠난 다음 천영소장이 계속 활하게 하였다. 그리고 천이완 남이 남자로써 40세에 전근 생활을 한 권리는 있다 하여도, 본래 건강체 체육가의 성질로, 직업이 집에 있어 있을 수 없었다. 그와 더불어 우르베코 공화국 하유겐트는 북한에 가기 전까지 살던 곳이고 하여 동생, 친구들도 있고 하여 그들의 권고에 따라 1961년 7월 불어 공화국 원유 및 가스 산업성 가스도관 배설 기계화 관리국장으로 임하시면서 위신 있는 활동을 하시었다. 다음 1967년 7월 불어 공화국 건설성 산하 건설 도구 관리국장으로 1979년까지 임하시고, 60세에 환갑을 맞이한 다음 은퇴하여 10년 동안 공휴적 휴식을 하였다. 선생은 24년 북인 감이나 양과 함께 소련 전역에 곳곳에 있는 휴양소, 경영소들에 다 다니며 휴식하였다. 그때로는 소련 관광단 성원으로 걸 유럽(러) 나라들에 다니며 구경하시었다. 선생은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조국이 통일되면 꼭

17,

국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 것을 희망하였으므로 자식들은  
그런 정신으로 교양하였다. 선생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시기  
인 1987년 봄에 그 혈압병으로 심증하시다가 1989년 10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최선생은 생전에 아들 4형제를  
다 장가보내고 딸 형제도 다 시집보내며 손주들이 무럭무럭  
위대속에서 아주 노화롭게 지내시었다. 최선생의 사생족  
아들 4형제는 전복다 구국전선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조국의 번영에 상당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최선생의  
부인 장이나 할아버지는 참 최선생과 행복과  
고초를 같이하여 그 선생의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연정을 따  
하여 감사해주고 위로하여 주었다. 할머니는 오늘날에도 건강한  
몸으로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유가족후원회 가감열성  
자로 활동하시며 손주들의 일들을 감사해주고 있다.

1995. 12. 5. 장남 최철락.